

岩崎書店版

최신 가정학 사전

全體的인 관리라는 것

家庭管理篇中에서

氏家壽子著 (일본여대교수)

박 남 길 읊김

(생활의 세부분과 가정)

사람의 생활을 학자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1. 근로 생활
2. 휴양 생활
3. 여가 생활이다.

또 한 학자는 셋을 다시 나누어 위락(慰樂)과 교양(敎養)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 후자를 전자가 나눈 것과 합하여 생각해 보면 가족은 외부에 있어서 각각 그 입장에서 직업 학습등에 노력 근면하고 있다. 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휴식을 하고 영양의 보급을 받는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공통한 생활 시간의 보내는 방법이나 그 외에 두 가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생활이 있다. 이것은 여가생활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의 대부분은 근로생활을 가정밖에서 행하고 휴양과 여가의 생활의 대부분을 가정내에서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여가생활을 생각해 보면 마치 가계의 교화비 문화비 라고 할 만한 것으로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힘이 들고 더욱이 이것은 성질상 전혀 자유인 것이다. 즉 타방면으로 보다 더 신체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생활비로서의 수입이 소비되면 그 방면의 지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필수 지출이 미쳐지고 그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면 자유롭게 그 방면에 충족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활을 위한 근로, 또는 직무,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위한 근로에 하루의 주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휴양과 위안의 향상을 도모하는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잘 생활 관화가 되어서 여유가 생기면 얼마든지 그 희망이 충족하게 될 것이다.

공적인 책임과 속박을 가지지 않는 여가생활은 인간형성의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문화정도가 높은 국민은 일상생활면에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을 편리하고 속력화하는데 전염을 다 하는 것은 여가를 많이 가지기 위한 것이다. 가정은 그 중요한 생활을 하는 장소로, 큰 사명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의 욕망은 음식하고 수면하는 것으로만족할 수 있겠는가? 직무를 완전히 수행한다면 그 이상 그만인 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리 없다. 누구든지 진보와 향상을 원하고 있다. 문화적 요구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정에서 요구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곧 그것을 가정밖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외부에서 찾았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가족이 여가의 대부분을 가정밖에서 보낸다고 하면 실은 가정의 의의는 대단히 미미해 지겠다.

가정관리는 가족의 생활을 잘 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집안 일을 착착 진행시키고, 능률을 증진시키는 길을 찾는 것도 그곳에 풍부한 여가를 만들고 그 것으로 가족의 높은 요구를 충족시켜 가자는 것으로 결코 주부 일개인의 손을 떠나 주자는

간단한 목적만은 아닌 것이다.

[아름다운 생활]

여가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정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 이것은 반드시 큰 저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요, 훌륭한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내의 소재가 구석구석 잘 되고 청결한 위에 정돈도 잘 되고 어여쁜 꽃도 꽂혀지고 조화되는 액자도 걸려 있어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집을 그 누가 삶다고 할 것인가. 우리들은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다. 붉은 계통의 벽에서 흥분하고, 녹색 계통 벽에서는 침착해 진다고, 하지 않나. 매일의 생활이 색에 있어서, 모양에 있어서, 아름다워야겠다. 우리나라 풍습에는 배고 자는 배개에도 한송이 꽃 한쌍의 봉황새가 그려져 있는 만큼 미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전자는 우리에게서 미적요소를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조잡한 무늬가 그려진 추악한 복장에 매몰되고 말았다. 산업이 부흥하고 어여쁜 것들이 눈에 띄게 되었으나 가정생활은 그 선택에 새 주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생활에는 어느 곳에서 구해질 것인가. 문화국가를 세워 보아야겠다는 크나큰 희망에 우선 호응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야 한다.

실용과 미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활동복에도 미가 있고 소재용구 거는 법에도 미는 있다. 또 생활미는 식탁위에도 식품의 담는 법에도 도시락 주머니에도 볼 수 있다. 한조각 옷을 깁는 곳에도 미는 있다. 이와같이 생각할 때에 가정관리의 분야는 넓다. 다시 참된 생활미는 눈만이 아니고 귀를 통하여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득 할 수 있다. 부드러운 말씨 온화한 음률 예술적인 생활요소 그리고 평화를 구하고 유지하려는

가족들의 마음씨 등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아름답다는 것은 또 능률을 높이는 것도 된다.

[즐거운 생활]

즐기는 말을 깊은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것은 생을 즐기는 것이다. “Enjoy Life” 우리들은 때로 생활은 피로운 것, 피로운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일 수 있다. 땅에 발을 불허지 못한 듯한 생활을 목표로 하는 것은 위험하나, 명랑한 희망을 갖고 매일 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진보시키는 것이 아닐가. 그러한 뜻에서 가정에 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즐거운 가정생활을 목표로 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즐거운 것은 사람을 기르는데 필요조건이다. 만일에 주부가 혼자서 가족을 즐기게 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긴장하더라도 자연이 한도가 있는 것이다. 가족은 주부를 빼놓고, 구경꾼이면 방관자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구경꾼들이 싸움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하기 위하여 가족전부가 일치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가족관계가 온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가정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서로 화목하게 이야기하며 서로 돋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가정의 문화 생활]

좋은 가정생활은 사회의 문화에 뒤져서는 안된다. 가정생활의 내용에 좀 더 문화적인 요소를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수지의 조화가 잘 되어지고 가족의 일상생활이 원만하게 유쾌하게 운영되어 간다고 할지라고 저문화에서 정지되어 있다면 보잘 것 없는 인간생활 밖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으로 진실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전체적인 관리라는 것

없는 것이다. 문화적 요소라고 하면 선진국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을 들여 오고 또 응용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은 방편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화생활을 말한다면 우리들은 좀 더 지식을 넓히고 기술을 연마하는데 힘을 들여야 한다. 가정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우물안에 사는 동안 사회의 문화적 조류는 손쉽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 온다 하더라도 침체 상태를 면하지 못 할 것이다. 훌륭한 도서를 풍부하게 준비하는 것은 그 목적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가족은 독서를 가정생활의 큰 일(자유로운 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히 한도가 있는 까닭에 이웃과 교환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 방법은 반드시 도서뿐이 아니다. 생활하는 방법에도 그 밖에도 모든 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입장에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이다. 가정의 문화가 얇으면 사회의 문화의 높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문화생활라는 것은 벌써 웃으워지고, 문화는 생활이라고 한다. 우리들은 현재의 가정이 적어도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깊이 반성해 볼 필요를 느끼고 있다.

관습은 우리들의 문화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는 자랑할만한 것도 있으나 부끄러운 것도 많다. 더욱이 가정관리란 이것에 제한을 받는 것이 허다하다. 젊은 사람은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즐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확실이 비판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은 또 하고자 하는 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스릴을 좋아하고 결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화려하지 않은 일이며 많은 경

험에 의하여야 하므로 조금 멀리 하기 쉬우나, 실은 나날이 새롭지 않으면 책임을 완수하기 어렵다.

[생활의 사회화와 사회봉사]

문화적 향상에 관하여도 한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근소한 것이므로, 협력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섹으나 크나큰 관리의 성과를 바랄 진대 아무래도, 협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정은 사회에서 다대한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가 없다 치더라도 사회를 떠나서 우리 가정은 있을 수 없고 우리 가정은 생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정관리는 사회생활을 가한 것이라야 하겠다.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적은 힘이라도 자기 시간에 적은 시간이라도 조개서 자기가 사는 사회생활에 봉사하는 것을 습관화 시켜야 한다. 가정이 사회에 봉사하는 생활을 유지 발전 시킨다는 것은 관리의 완성이다.

[나의 집의 성장을 목표로]

아이들은 집의 꽃이다. 나날이 지혜가 불고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고 가족생활을 풍부케 한다. 성장하는 것이 아이들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커가는 사람을 위하여 서도 가정은 성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가족의 마음에 깃든 이상이다. 희망이다. 그 등불을 밝혀 가면서 밝은 가정생활을 해 나가는데 노력하자. 작년보다도 금년, 금년보다도 내년으로 가정생활이 모양과 마음, 의관과 내용 다 같이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정관리라 하겠다.

차차 전진하는 자신을 볼 때 가족은 누구든지 감사와 희열의 눈동자를 빛낼 것이다.